

##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의 관련 변인 분석 - 부모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

박진영

채규만<sup>†</sup>

성신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의 집단 따돌림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 양육 행동과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천 소재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남·여학생 481명(총 15학급)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 가해 척도와 피해 척도를 이용하여 집단 따돌림 가해 집단과 피해 집단, 가해-피해 집단을 구분하였다.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 정도는 성별, 학년, 부모 동거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집단 따돌림 경험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고, 관련 변인 중 집단 따돌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낮을수록, 부정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경험이 더 높았다. 또한,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미성숙할 경우 집단 따돌림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태도,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과 집단 따돌림 경험간의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은 해석 능력과 모의 거부적 태도였다.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의 공격적·적대적 태도, 수행평가능력, 역할수행능력, 부의 온정적·애정적 태도, 목표설정능력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양육 행동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은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집단 따돌림 피해 아동, 집단 따돌림 가해 아동, 부모 양육 행동,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 본 연구는 박진영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그 자료를 일부 발췌하여 수정, 재분석한 것임.

† 교신저자: 채규만, 성신여자대학교, E-mail: kmchae@sungshin.ac.kr

집단 따돌림 현상은 1970년대에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mobing’, ‘bullying’, ‘이지메’ 등의 용어로 연구되었다(이춘재, 박금주, 2000). 우리나라에서는 ‘이지메’라는 용어가 소개되면서 따돌림이라는 말이 점차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왕따’, ‘따돌림’, ‘괴롭힘’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는데, 정부에서는 1999년에 국무회의를 거쳐 ‘왕따’라는 용어 대신 ‘집단 따돌림’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였다(송미선, 2007).

집단 따돌림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Olweus(1994)는 ‘bullying’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한 명 이상이 저지르는 부정적 행동에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그러한 부정적인 행동에는 신체적, 언어적 방법 뿐 아니라,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놀리는 것과 같은 기타 행동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Smith와 Brain(2000)은 ‘bullying’을 “힘의 불균형과 반복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본용(1997)이 집단 따돌림이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혹은 특정 집단)을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어적·신체적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주현, 신지용, 연병길, 한창환(2000)은 집단 따돌림은 “반복적으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아픔을 야기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힘의 남용”이라고 정의하였다. 강진령과 유형근(2000)은 괴롭힘은 “공식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이나 만족을 위해 스트레스를 유발할 의도로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언어적으로 반복하여 공격하는 행위”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집단 따돌림은 다수가 특정한 개인 혹은 소수를 신체적·언어적·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학교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 현상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그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최근 몇 년간 매스컴에서는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자살하게 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보도 내용을 자주 다루면서, 집단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어 왔다.

외국의 경우 역시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해 사회적인 우려를 나타내 왔다. 지속적인 따돌림을 호소하는 학생이 일본은 11.8%, 영국은 10%, 노르웨이는 9%, 우리나라는 8.4%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초등학교의 10% 정도가 장기간에 걸쳐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학생들의 살인,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의 경우 역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학생들의 총기 난사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한준상, 2002). 1999년 4월 20일에 발생한 콜롬비아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은 학교를 자퇴하기 전까지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였던 학생 두 명이 동료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을 무참히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이다. 얼마 전 무차별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조승희도 예민한 사춘기 시절 따돌림을 당한 상처에 시달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한겨레21, 2007).

Olweus의 종단적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6

학년~중학교 3학년 사이에서 가해자로 판정된 학생의 60%가 24세 때 최소한 한 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35~40%는 그 나이에 세 번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범했는데 이에 비해 통제집단의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따라서 학교시절 때 가해자였던 학생이 젊은 청년으로 성장할 때 그들이 심각한 상습적 범죄자가 될 확률은 4배로 증가한다(이훈구, 2000, 재인용). 이처럼 집단 따돌림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전반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집단 따돌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집단 따돌림 경험에 대해 초등학생 4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28.57%만이 일반집단 아동인 반면, 나머지 71.43%은 피해, 가해 또는 가해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피해 집단이 41.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가해 집단이 14.81%, 피해 집단이 15.58%인 것으로 나타났다(장미향, 성한기, 2007). 이처럼 과거뿐 아니라 최근의 연구에서도 높은 수준의 집단따돌림 경험이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한 지역에서의 1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학급에서의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따돌림 가해 경험을 한 학생 역시 초등학생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적으로 대처 방법이 미숙한 초등학생을 위한 지도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김옥엽, 1999).

모든 수준의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 행해

지고 있지만 초등학교 시기가 갖는 인간 발달 단계상의 중요성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수준의 집단 따돌림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은 다음 단계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생활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집단 따돌림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며, 특히 초등학교 때의 집단 따돌림은 전학, 이민, 정신질환, 자퇴, 보복살인,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송미선, 2007). 위와 같은 논점을 종합해 볼 때 집단 따돌림에 대한 연구에서 다른 연령대보다도 특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집단 따돌림의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집단 따돌림의 피해 및 가해자의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내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본용(1997)은 집단 따돌림의 연구 동향에 대해 피해자의 개인내적 특성 분석을 통한 접근과 가해자의 행위나 의도 분석을 통한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분석했다. 강은희(2002)는 최근 집단 따돌림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이 집단 따돌림과 관련된 피해자 및 가해자는 독특한 개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의 기질적 특성에 관심을 갖고, 또한 개인적 특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초기 가정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송미선(2007)도 집단 따돌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문화적 요인, 학교 환경적인 요인, 가정적 요인, 개인적 요인의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사회·문화적 요인이 되는 아동 문

화의 특징으로 외면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 미래지향적 가치보다는 현재의 욕구 충족에 가치를 두는 경향, 집단적 모방의 식이 강한 점 등을 들었다. 학교 환경적 요인으로는 교사의 차별적 상호작용, 학교·학급 행사로 인한 점, 자리배치로 인한 점 등을 들었다. 가정적 요인으로 형제관계보다는 부모와의 관계가 갈등을 주로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신체적 힘의 차이, 공격적 특성, 정서 및 행동 부적응, 개별화와 공감 능력의 미발달 등으로 보았다. 김선애(2007)는 가족 기능의 상실과 집단 따돌림의 관계에 주목하였고, 표내숙, 정상훈, 표경희(2008)는 집단 따돌림의 피해, 가해 경험과의 관련 요인으로 애착관계와 교우관계기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Spriggs, Iannotti, Nansel, Haynic(2007)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회적 소외, 교우 관계 등과 집단 따돌림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으며, Holt MelissaK, Kaufman Kantor, Glenda Finkelhor, David(2009)는 가족 특성과 집단 따돌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Wei, Williams, Chen, Chang(2010)도 집단 따돌림의 관련 변인으로 개인적 특성(성별, 우울감, 나태한 태도)과 교사의 지지나 체벌, 학교 조직 특성(학교의 크기, 학생에 대한 교사의 비율)과 같은 사회환경적 변인이 집단 따돌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처럼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사회환경적 접근과 개인내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환경적으로는 부모의 영향을 집단 따돌림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고,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사회기술적 측면의 미성숙, 자기 표현과 대처 방법의 미숙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 따돌림 경험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내적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접근 중에서, 특히 부모 양육 행동과 집단 따돌림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가정 내 관계 중에서 갈등을 주로 야기시키는 것은 형제관계보다는 부모와의 관계인데, 부모와 자녀간의 부정적인 관계는 이미 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집단 따돌림과 밀접한 관련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송미선, 2007). 유지영(2004)도 부모와 자녀 관계와 집단 따돌림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Freud로부터 시작해 여러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관점에 따라 아동기에 형성되는 성격적인 측면과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등에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관점의 배경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것인데, 부모의 양육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김선희, 2004). Georgiou, SteliosN(2008)과 Pontzer, Daniel(2010)도 집단 따돌림과 부모 양육 태도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인내적 요인으로는 아동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살펴볼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사회적 기술과 집단 따돌림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 따돌림 피해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주목한 한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 피해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사회 기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Fox ClaireL, Boulton MichaelJ, 2005). 그리고 O'Brien, Catherine(2007)은 집단 따돌림 경험에 대처 과정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돌림 피해 아동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와 잘못된 자각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사회 기술의 부족으로 또래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소외된다(송미선, 2007). 초등학교 시기의 집단 따돌림에서는 언어 표현이 미숙하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일상적인 불만이나 스트레스 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따돌림이 발생한다(김옥엽, 1999). 따라서 집단 따돌림에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전윤식과 강영심(1987)은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두 변인간에는 부적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문제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수단을 구상해 내는 능력과 청소년 비행과는 부적 상관성이 있었는데, 문제 해결에 있어 장애 요인과 적절한 시간을 고려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비행의 정도가 낮았다. 집단 따돌림 문제 역시 학생들의 비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제해결 능력과 집단 따돌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김옥엽(1999)도 집단 따돌림 아동들은 미숙한 문제해결능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돌림 피해 아동의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혼자 고민하면서 생활한다’가 ‘부모님께 상의’, ‘선생님께 도움 요청’보다 많았다. 또한 따돌림 피해 학생들은 스스로의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의 해결 방안보다는 참거나 대항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따돌림 후의 행동인 침묵, 등교 거부, 무기력 등의 소극적인 대처 방식과도 관련이 있으며, 따돌림 당했을 때의 억울함이나 분노의 감정이 복수심을 일으켜

대항하게 하여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게 하기도 한다. 이규미, 문형춘, 홍혜영(1998)은 피해 학생들의 특성은 주로 사회적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태도와 행동들이 주조를 이룬다고 하면서,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공상이나 잡념 등의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는 것,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하거나 엉뚱한 행동,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회피행동, 부적절한 대처행동과 사회기술의 부족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집단 따돌림 경험 아동들은 특정의 문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대처 반응을 확인하고 발견하려는 인지적 행동이 부족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부적절한 반응, 회피 행동 등을 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 사회 환경적 요인과 개인내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모두 고려한 연구보다는 어느 한쪽의 요인에 치중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가해와 피해 집단을 모두 연구한 경우보다는 피해 집단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이며, 그 대상도 대부분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각 요인에 대해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의 원인을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내적 기능의 요인에서 살펴보기 위해 부모 양육 행동과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모의 4가지 양육 행동에 따른 집단 따돌림 경험을 알아보고,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각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에 관한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집단 따돌림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은 성별과 학년, 부모의 동거 유형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 문제 2.** 부모의 양육 행동은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가설 2-1.** 부모의 양육 행동이 부정적일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을 많이 할 것이다.

**가설 2-2.** 부모의 양육 행동 하위 유형에 따라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 3.**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의 발달 정도는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가설 3-1.**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의 발달 점수가 낮을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을 많이 할 것이다.

**가설 3-2.**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요소에 따라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인천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남·여학생 481명(총 15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조사대상자가 설문지에 직

접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해당 학급의 담임 교사에게 설문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뒤, 담임 교사가 대상 학생들에게 조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았다.

### 측정도구

#### 집단 따돌림 가해 척도

집단 따돌림 가해 척도는 Neaary와 Joseph에 의해 개발된 척도이다(방신의, 2003, 재인용). 이춘재, 광금주(2000)가 사용한 척도를 방신의(2003)가 집단따돌림 유형 중 제외된 내용(소외, 무시)을 일부 첨부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해자 선별 문항은 총 8문항(1, 3, 5, 7, 9, 11, 13, 15)이며, 4점 척도로서 각 문항당 1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 경험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총 8문항 중 1, 5, 13번은 부정문항이므로 역방향으로 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  $\alpha = .62$ 로 나타났다.

#### 집단 따돌림 피해 척도

따돌림 피해 척도는 Callaghan과 Joseph이 개발하였다(방신의, 2003, 재인용). 이춘재, 광금주(2000)가 사용한 척도를 방신의(2003)가 집단 따돌림 유형 중 제외된 내용(소외, 무시)을 일부 첨부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피해자 선별 문항은 총 8문항(2, 4, 6, 8, 10, 12, 14, 16)이며, 4점 척도로서 각 문항당 1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을 많이 받는 것이다. 그리고 총 8문항 중 6번은 부정문항이므로 역방향으로 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  $\alpha = .79$ 로 나타났다.

### 부모 양육 행동

부모 양육 행동은 Rohner에 의해 제작된 PARQ(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척도(김선희, 2004, 재인용)를 안정만(2001)에 의해 재구성한 척도를 참고하여 김선희(2004)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한다. PARQ 척도는 Rohner에 의해 4개 영역 총 60문항(온정-애정 20문항, 공격-적대 15문항, 무시-무관심 15문항, 거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안정만은 각 차원별로 온정-애정 9문항, 공격-적대 7문항, 무시-무관심 7문항, 거부적 태도 5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온정-애정적 행동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이나 애정을 조건없이 준다고 인지되며, 인정을 통한 수용적 태도를 말하며, 공격-적대적 행동은 부모가 화가 났거나 가혹하다거나 자녀에 대해 분노에 차 있다고 인지되는 것으로 자녀는 부모가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무시-무관심 행동은 자녀에 대해 걱정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 자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거나 아주 최소한의 시간만을 할애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녀들의 요구를 거의 들어 주지 않거나 도움 요청에 대해 무시, 냉담, 거리를 두려하거나 무관심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부적 행동은 자녀에 대해 온정이나 애정이 없는 정도가 명확하고 강하게 인지되는 것을 말한다.

양육 행동의 측정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행동으로 부와 모에 대해 지각하는 양육 행동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응답 방법은 응답자가 4가지 응답범주(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중 하나의 응답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문항 번호별로 점수화한다. 문항의 배점은 4점 척도로서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지각하고 있는 양육 행동을 많이 경험한 것이다.

부모 양육 행동 검사지의 하위 영역 중 온정-애정적 행동의 Cronbach  $\alpha = .91$ , 공격-적대적 행동의 Cronbach  $\alpha = .83$ , 무시-무관심 행동의 Cronbach  $\alpha = .82$ , 거부적 행동의 Cronbach  $\alpha = .76$ 로 나타났다.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생애능력측정도구(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2003) 중 초등학생용 진단지를 사용한다. 생애능력 측정도구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세 영역에서의 진단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두 영역에서의 진단지를 사용한다. 위 진단지는 능력이 작용하는데 내재하는 과정(process)을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개념화의 틀로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발달적인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의사소통능력 진단지는 해석능력, 역할 수행능력, 자기제시능력, 목표설정능력, 메시지 전환 능력의 5개의 능력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해결능력 진단지는 문제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실행, 수행평가의 5개의 능력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지의 문항 배점은 5점 척도로서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의 응답 범주를 가진다. 응답자는 이 응답 범주 중 하나에만 표시하도록 한

표 1. 척도 구성과 문항 예

척도	문항 항목	문항수	문항 예		
집단 따돌림 가해		8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한다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험한 욕을 하지 않는다		
		8	다른 아이들이 나를 노는데 끼워주지 않는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때리거나 못살게 군다		
부모 양육 행동	온정적·애정적 태도	9	내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신다		
	공격적·적대적 태도	7	나에게 쉽게 화를 내신다		
	무시·무관심 태도	7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모른 척 하신다		
	거부적 태도	5	나를 매우 귀찮게 여기신다		
의사소통 능력	해석 능력	정보수집	7	내 의견과 상대방 의견이 다를 때, 서로 다른 점이 무엇 인지를 알아본다	
		경청	7	내가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에게 말한다	
	역할 수행 능력	고정관념적 사고 극복	7	똑같은 이야기라도 상대방이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에 따라서 말하는 표현방식이 다르다	
		창의적 의사소통	7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도 잘 듣는다	
	자기 제시 능력	자기 드러내기	7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목표 설정 능력	주도적 의사소통	7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한다	
	메시지 전환 능력	타인관점 이해	7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본다	
	문제해결 능력	문제 명료화	문제 인식	5	내가 원하는 모습과 현재 모습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한다
		원인분석	정보수집	5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알기 위해 비슷한 상황에 대한 정보도 수집한다
			분석	5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어느 자료가 문제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비교한다
대안개발		확산적 사고	5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과 나의 문제를 연관시켜본다	
		의사결정	5	여러 가지 문제해결방법들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를 정한다	
계획/실행		기획력	5	문제를 해결할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여 둔다	
		실행과 모험 감수	5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하기로 정한 것은 끝까지 한다	
수행 평가		평가	5	지금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나중에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피드백	5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망하기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다. 점수가 높을수록 능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의사소통능력 진단지는 49문항으로, 문제해결능력 진단지는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능력 검사지의 하위 요소 중 해석 능력의 Cronbach  $\alpha = .77$ , 역할 수행 능력의 Cronbach  $\alpha = .58$ , 자기 제시 능력의 Cronbach  $\alpha = .74$ , 목표 설정 능력의 Cronbach  $\alpha = .73$ , 메시지 전환 능력의 Cronbach  $\alpha = .78$ 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 검사지의 하위 요소 중 문제 명료화의 Cronbach  $\alpha = .80$ , 원인분석의 Cronbach  $\alpha = .83$ , 대안 개발의 Cronbach  $\alpha = .76$ , 계획/실행의 Cronbach  $\alpha = .86$ , 수행 평가의 Cronbach  $\alpha = .84$ 로 나타났다.

표 1에 각 척도의 구성과 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전반적인 자료 처리를 위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Window용 SPSS 15.0을 사용했다.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집단 따돌림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 분석과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사용하였다. 넷째, 부모 양육 행동,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집단따돌림 성향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관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유형별로 집단 따돌림의 피해 및 가해 경험을 잘 설명해주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인천 소재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남·여학생 481명(총 15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의 481부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많거나 한 번호에만 응답한 것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피험자는 총 459명이었다.

표 2를 보면,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31명(50.3%), 여학생이 228명(49.7%)이었으며, 5학년은 205명(44.7%), 6학년은 254명(55.3%)으로 6학년이 약 10% 정도 많게 표집되었다.

학교 성적을 보면 중위권에 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240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은 166명(36.2%)이었고, 하위권은 49명(10.7%)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살펴보면,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학생이 418명(91.1%)으로 나타났고, 부모 중 아버지와만 동거하는 학생은 14명(3.1%), 어머니와만 동거하는 학생은 24명(5.2%), 모두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은 2명(0.4%)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대부분이 부모님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중 한쪽과만 같이 사는 경우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서는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39명(7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89명(19.4%)이었고, ‘하’라고 응답한 학생은 15명(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 전체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459)

	구분	명 수	빈도(%)
성별	남	231	50.3
	여	228	49.7
학년	5학년	205	44.7
	6학년	254	55.3
학교성적	상	166	36.2
	중	240	52.3
	하	49	10.7
	무응답	4	0.9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모두 동거	418	91.1
	아버지와만 동거	14	3.1
	어머니와만 동거	24	5.2
	모두 동거하지 않음	2	0.4
	무응답	1	0.2
경제적 수준	상	89	19.4
	중	339	73.9
	하	15	3.3
	무응답	16	3.5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 정도**

연구 대상자의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성향에 대한 분류는 이춘재와 박금주(2000)가 사용한 분류 기준과 김선희(2004)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가해 집단 :

따돌림 가해 Z점수  $\geq 1$ , 따돌림 피해 Z점수  $< 0$

· 피해 집단 :

따돌림 피해 Z점수  $\geq 1$ , 따돌림 가해 Z점수  $< 0$

· 가해-피해 집단 :

따돌림 가해 Z점수  $> 1$ , 따돌림 피해 Z점수  $> 1$

그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가해 집단은 43명으로 9.4%(약 3명/1개 학급)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으며, 피해 집단은 22명으로 4.8%(약 1명/1개 학급), 가해-피해 집단은 25명으로 5.4%(약 2명/1개 학급)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따돌림 문제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가해 집단은 9.4%로 세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집단 따돌림 문제에서 가해자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 집단이 피해 집단보다 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전재천(1999), 최윤정, 김종원, 진혜경(2001)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가해 비율은 집단 따돌림이 두 명 이상의 집

표 3.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 정도

단위: 명(%)

	구분	가해 집단	피해 집단	가해-피해 집단	일반 집단	$\chi^2$	df	p
성별	남	15 (6.5%)	15 (6.5%)	16 (6.9%)	185 (80.1%)	8.783	3	.032*
	여	28 (12.3%)	7 (3.1%)	9 (3.9%)	184 (80.7%)			
학년	5학년	25 (12.2%)	8 (3.9%)	18 (8.8%)	154 (75.1%)	12.613	3	.006**
	6학년	18 (7.1%)	14 (5.5%)	7 (2.8%)	215 (84.6%)			
학교 성적	상	10 (6.0%)	7 (4.2%)	4 (2.4%)	145 (87.3%)	11.549	6	.073
	중	25 (10.4%)	12 (5.0%)	18 (7.5%)	185 (77.1%)			
	하	8 (16.3%)	3 (6.1%)	3 (6.1%)	35 (71.4%)			
	무응답	0 (0.0%)	0 (0.0%)	0 (0.0%)	4 (100.0%)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모두 동거	34 (8.1%)	20 (4.8%)	21 (5.0%)	343 (82.1%)	20.620	9	.014*
	아버지와만 동거	3 (21.4%)	0 (0.0%)	1 (7.1%)	10 (71.4%)			
	어머니와만 동거	6 (25.0%)	1 (4.2%)	2 (8.3%)	15 (62.5%)			
	모두 동거하지 않음	0 (0.0%)	1 (50.0%)	0 (0.0%)	1 (50.0%)			
	무응답	0 (0.0%)	0 (0.0%)	1 (100.0%)	0 (0.0%)			
경제적 수준	상	10 (11.2%)	5 (5.6%)	5 (5.6%)	69 (77.5%)	3.987	6	.678
	중	30 (8.8%)	14 (4.1%)	18 (5.3%)	277 (81.7%)			
	하	2 (13.3%)	2 (13.3%)	1 (6.7%)	10 (66.7%)			
	무응답	1 (6.2%)	1 (6.2%)	1 (6.2%)	13 (81.2%)			
계		43 (9.4%)	22 (4.8%)	25 (5.4%)	369 (80.4%)			

\* p< .05 \*\* p< .01

단이 특정한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 집단은 1개 학급당 약 1명의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선희(2004) 등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을 보면, 성별과 집단 따돌림 경험에서, 가해 집단에서는 남자는 6.5%, 여자는 12.3%로 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집단에서는 남자가 6.5%, 여자가 3.1%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피해 집단에서는 남자가 6.9%, 여자가 3.9%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집단 따돌림 경험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19.9%, 여학생이 19.3%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결국, 가해 경험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많고, 피해 경험과 가해-피해 경험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집단 따돌림 경험에 있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험 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학년과 집단 따돌림 정도를 살펴보면, 가해 집단에서는 5학년이 12.2%, 6학년이 7.1%로 5학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집단에서는 5학년이 3.9%, 6학년이 5.5%로 6학년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피해 집단에서는 5학년이 8.8%, 6학년이 2.8%로 5학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집단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집단 따돌림 경험에 있어서 5학년은 24.9%, 6학년은 15.4%로, 5학년이 6학년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이 낮을수록 집단 따돌림 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해나 피해율이 떨어진다고 나타난 연구들(이상균, 1999. 방신의, 2003. 김선희, 2004.)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성적과 집단 따돌림 경험 정도를 보면,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 동거 유형과 집단 따돌림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가해 집단에서는 부모 중 어머니와만 동거하는 경우가 2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버지와만 동거하는 경우가 21.4%,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는 8.1%, 부모 모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0.0%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피해 집단에서는 모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로 4.8%로 나타났다. 부모 중 어머니와만 동거하는 경우는 4.2%로 나타났다, 아버지와만 동거하는 경우는 0.0%로 나타났다. 가해-피해 집단에서는 부모 중 어머니와만 동거하는 경우가 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버지와만 동거하는 경우로 7.1%,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는 5.0%, 모두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0.0%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는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에 있어서 비교적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모 동거 여부와 관련된 가정 환경적 요인이 집단 따돌림 경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3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집단 따돌림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부모 양육 행동,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과 집단 따돌림 경험과의 관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 양육 행동,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아동의 문제해결능력과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간의 상관 관

표 4.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온정 태도_부	공격 태도_부	무시 태도_부	거부 태도_부	온정 태도_모	공격 태도_모	무시 태도_모	거부 태도_모	해석 능력	역할 수행 능력	자기 제시 능력	목표 설정 능력	메시지 전환 능력	문제 명료화	원인 분석	대안 개발	계획 실행	수행 평가	가해 경험	피해 경험	
온정태도_부	1																				
공격태도_부	-.021	1																			
무시태도_부	-.198 (**)	.682 (**)	1																		
거부태도_부	-.013	.702 (**)	.625 (**)	1																	
온정태도_모	.691 (**)	-.216 (**)	-.361 (**)	-.209 (**)	1																
공격태도_모	-.216 (**)	.614 (**)	.412 (**)	.418 (**)	-.097 (*)	1															
무시태도_모	-.347 (**)	.432 (**)	.718 (**)	.375 (**)	-.276 (**)	.629 (**)	1														
거부태도_모	-.206 (**)	.458 (**)	.392 (**)	.693 (**)	-.083 (**)	.697 (**)	.547 (**)	1													
해석능력	.279 (**)	-.116 (*)	-.167 (**)	-.080	.263 (**)	-.112 (*)	-.190 (**)	-.104 (*)	1												
역할수행능력	.125 (**)	-.136 (**)	-.174 (**)	-.133 (**)	.101 (*)	-.155 (**)	-.125 (**)	-.139 (**)	.125 (**)	1											
자기제시능력	.205 (**)	-.008	-.110 (*)	-.021	.237 (**)	.007	-.146 (**)	-.015	.558 (**)	.059	1										
목표설정능력	.211 (**)	-.054	-.170 (**)	-.035	.175 (**)	-.063 (**)	-.211 (**)	-.047	.613 (**)	.010	.604 (**)	1									
메시지전환능력	.225 (**)	-.050	-.120 (**)	-.032	.190 (**)	-.052	-.166 (**)	-.063	.608 (**)	.025	.558 (**)	.615 (**)	1								
문제명료화	.243 (**)	-.070	-.164 (**)	-.065	.212 (**)	-.072	-.168 (**)	-.055	.530 (**)	.015	.449 (**)	.496 (**)	.539 (**)	1							
원인분석	.249 (**)	-.073	-.172 (**)	-.073	.205 (**)	-.060	-.190 (**)	-.030	.557 (**)	.006	.439 (**)	.499 (**)	.586 (**)	.722 (**)	1						
대안개발	.249 (**)	-.098 (*)	-.216 (**)	-.083	.216 (**)	-.081	-.207 (**)	-.042	.579 (**)	.120 (**)	.482 (**)	.550 (**)	.568 (**)	.644 (**)	.710 (**)	1					
계획실행	.253 (**)	-.090	-.148 (**)	-.061	.262 (**)	-.092 (*)	-.195 (**)	-.020	.578 (**)	.070	.448 (**)	.535 (**)	.581 (**)	.645 (**)	.724 (**)	.729 (**)	1				
수행평가	.274 (**)	-.037	-.137 (**)	-.030	.246 (**)	-.052	-.174 (**)	-.002	.580 (**)	.036	.494 (**)	.543 (**)	.612 (**)	.639 (**)	.694 (**)	.704 (**)	.756 (**)	1			
가해경험	-.133 (**)	.089	.071	.101 (*)	-.082	.129 (**)	.134 (**)	.132 (**)	-.141 (**)	-.055	-.050	-.054	-.061	-.093 (*)	-.081	-.075	-.092 (*)	-.018	1		
피해경험	-.209 (**)	.230 (**)	.225 (**)	.223 (**)	-.187 (**)	.223 (**)	.203 (**)	.199 (**)	-.117 (*)	-.226 (**)	-.070	-.010	-.087	-.129 (**)	-.124 (**)	-.107 (*)	-.130 (**)	-.167 (**)	.309 (**)	1	

\* p< .05 \*\* p< .01

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상관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부의 양육 행동 요인 중 온정적 태도와는  $r=-.133(p<.01)$ 의 부(-)적인 상관 관계를, 부의 양육행동 요인 중 거부적 태도와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는  $r=.101(p<.05)$ 의 정(+ )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모의 양육 행동 요인 중 공격적 태도( $r=.129, p<.01$ ), 무시 태도( $r=.134, p<.01$ ), 거부 태도( $r=.132, p<.01$ )와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는 정(+ )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부의 양육 행동 요인 중 온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부의 거부 태도가 높을수록, 모의 양육 행동 요인 중 공격 태도, 무시 태도, 거부 태도가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능력 중 해석 능력( $r=-.141, p<.01$ )과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은 부(-)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문제해결능력 중 문제 명료화( $r=-.093, p<.05$ ), 계획 실행( $r=-.092, p<.05$ )과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의사소통능력 중 해석 능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 중 문제 명료화, 계획실행 능력이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상관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부의 양육 행동 요인 중 온정적 태도 ( $r=-.209, p<.01$ )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공격 태도( $r=.230, p<.01$ ), 무시 태도( $r=.225, p<.01$ ), 거부 태도( $r=.223, p<.01$ )와는 정(+ )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모의 양육 행동 요인 중 온정적 태도( $r=-.187, p<.01$ )와 공격 태도 ( $r=.223, p<.01$ ), 무시 태도( $r=.203, p<.01$ ), 거부 태도( $r=.199, p<.01$ )와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 태도가 온정적일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낮아짐을 알 수 있는 반면, 부모의 양육 태도가 공격, 무시, 거부 태도일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능력 중 해석 능력, 역할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 중 문제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 실행, 수행평가 능력이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 부모 양육 행동,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이 집단 따돌림 경험에 미치는 영향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tepWise 방식). 즉, 부모 양육 행동,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검증하였으며,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StepWise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순서대로 추리는 방법으로, 모형을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단순히 영향력이 큰 변수를 포함시키는 것 뿐 아니라, 전체적인 모형까지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방법이다.

분석 결과, 모델 1의 설명력( $R^2$ )은 총분산의 2.0%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9.225로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능력 중 해석 능력( $B=-.141, p<.01$ )은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석 능력이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5.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해경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P	R <sup>2</sup>
		B	표준오차	Beta						
모델1	(상수)	2.450	.096			25.607	.000	9.225**	.003	.020
	해석능력	-.006	.002	-.141		-3.037**	.003			
모델2	(상수)	2.298	.112			20.500	.000	7.953***	.000	.034
	해석능력	-.006	.002	-.128		-2.773**	.006			
	거부태도_모	.018	.007	.119		2.563*	.011			

\* p< .05    \*\* p< .01    \*\*\* p< .001

모델 2의 설명력(R<sup>2</sup>)은 총분산의 3.4%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7.953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석 능력(B=-.128, p<.01), 모의 거부적 태도(B=.119, p<.05)는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석 능력이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이 낮아짐을, 모의 거부적 태도가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tepWise 방식). 즉, 부모 양육 행동,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검증하였으며,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모델 1의 설명력(R<sup>2</sup>)은 총분산의 5.3%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5.498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의 공격적 태도(B=.230, p<.001)는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공격적 태도가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모델 2의 설명력(R<sup>2</sup>)은 총분산의 9.4%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3.786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의 공격적 태도(B=.225, p<.001), 부의 온정적 태도(B=-.204, p<.001)가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델 3의 설명력(R<sup>2</sup>)은 총분산의 12.4%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1.556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의 공격적 태도(B=.202, p<.001), 부의 온정적 태도(B=-.183, p<.001), 역할 수행 능력(B=-.176, p<.001)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델 4의 설명력(R<sup>2</sup>)은 총분산의 13.6%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7.854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의 공격적 태도(B=.199, p<.001), 부의 온정적 태도(B=-.152, p<.001), 역할 수행 능력(B=-.176, p<.001), 수행 평가(B=-.111, p<.05)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5의 설명력(R<sup>2</sup>)은 총분산의 14.9%를

표 6.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피해경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P	R <sup>2</sup>
		B	표준오차	Beta						
모델1	(상수)	1.284	.066			19.522	.000	25.498***	.000	.053
	공격태도_부	.030	.006	.230		5.050***	.000			
모델2	(상수)	1.671	.106			15.722	.000	23.786***	.000	.094
	공격태도_부	.030	.006	.225		5.059***	.000			
	온정태도_부	-.014	.003	-.204		-4.578***	.000			
모델3	(상수)	2.360	.203			11.602	.000	21.556***	.000	.124
	공격태도_부	.026	.006	.202		4.564***	.000			
	온정태도_부	-.012	.003	-.183		-4.128***	.000			
	역할수행능력	-.014	.004	-.176		-3.946***	.000			
모델4	(상수)	2.544	.216			11.793	.000	17.854***	.000	.136
	공격태도_부	.026	.006	.199		4.508***	.000			
	온정태도_부	-.010	.003	-.152		-3.327***	.001			
	역할수행능력	-.014	.004	-.176		-3.974***	.000			
	수행평가	-.008	.003	-.111		-2.456*	.014			
모델5	(상수)	2.425	.219			11.067	.000	15.852***	.000	.149
	공격태도_부	.027	.006	.204		4.647***	.000			
	온정태도_부	-.011	.003	-.161		-3.546***	.000			
	역할수행능력	-.014	.004	-.173		-3.929***	.000			
	수행평가	-.013	.004	-.183		-3.474***	.001			
	목표설정능력	.014	.005	.136		2.629**	.009			

\* p < .05    \*\* p < .01    \*\*\* p < .001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5.852로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의 공격적 태도(B=.204, p < .001), 부의 온정적 태도(B=-.161, p < .001), 역할 수행 능력(B=-.173, p < .001), 수행 평가(B=-.183, p < .001), 목표 설정 능력(B=.136, p < .01)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이 큰 순서는 부의 공격적 태도, 수행 평가 능력, 역할 수행

능력, 부의 온정적 태도, 목표 설정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의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 양육 행동과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이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부모의 4가지 양육 태도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의 각 5가지 하위 요소별로 집단 따돌림 경험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수행된 연구에서의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집단 따돌림 경험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가해 경험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많고, 피해 경험과 가해-피해 경험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집단 따돌림 경험에 있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김선희(2004), 김강희(2004), 전재천(1999) 등의 연구에서는 이와 다르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의 공격적 행동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실태와 연결지어서 여학생의 집단 따돌림 경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학생들이 괴롭히는 것은 엄격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한편, 여학생들이 가볍게 때리거나 놀리는 등의 행동은 귀엽다거나 장난스럽다는 시각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사회적인 통념 등이 여학생의 공격적 행동을 키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옥엽(1999)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남녀 차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남자 아동들은 폭력이나 신체적인 따돌림의 형태가 많은 것에 비해 여자 아동들은 보다 심리적인 따돌림 형태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척도는 무시와 소외

등의 심리적인 따돌림 유형도 함께 측정하였으므로 이러한 특성으로 여학생의 높아진 비율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년과 집단 따돌림 경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해 집단과 가해-피해 집단의 비율이 5학년이 6학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 집단에서는 6학년이 5학년보다 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집단 따돌림 경험에 있어서는 일반 집단과 비교하여 5학년이 6학년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집단 따돌림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이상균(1999), 방신의(2003), 김선희(200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 유형에 있어서는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에 있어서 비교적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동거와 관련된 가정 환경적 요인이 집단 따돌림 경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 중 한쪽과 동거하는 경우나 모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와 양육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여 이 점이 집단 따돌림 경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 성적과 경제적 수준에서는, 집단 따돌림과의 관계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서론에서 제시된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은 성별과 학년, 부모의 동거 유형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은 ‘성별, 학년, 부모 동거 유형’에서는 지지되었지만, ‘학교 성적, 경제적 수준’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둘째, 부모의 양육 행동과 의사소통능력, 문

제해결능력과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 행동,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은 모두 집단 따돌림 경험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행동의 요인 중 부의 온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이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부의 거부적 태도와 모의 공격적 태도, 무시 태도, 거부 태도가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온정적 태도가 낮을수록, 부모의 공격 태도, 무시 태도, 거부 태도가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낮을수록, 부정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재천(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로써 ‘부모 양육 행동이 부정적일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 행동 하위 유형에 따라 집단 따돌림 경험이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에서는 가해 경험은 해석 능력에서, 피해 경험은 해석 능력과 역할 수행 능력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정보 수집과 경청의 능력 발달이 낮을수록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 수집과 같이, 상황을 인지하고 빠르게 보는 시각이 왜곡되었을 때 집단 따돌림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정관념적 사고 극복과 창의적인 의사소통능력 발달에 있어서 미성숙할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요소와 집단 따돌림

경험과의 상관 분석 결과, 가해 경험에서는 문제 명료화와 계획 실행 요소에서만, 피해 경험에서는 문제 명료화, 원인 분석, 대안 개발, 계획 실행, 수행 평가의 모든 요소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인식하거나 기획력, 실행과 모험 감수의 능력 발달이 미성숙할수록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윤식과 강영심(1987)의 선행 연구와 유사하다.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의 전반적인 능력이 미성숙할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며, 문제해결능력의 전체 하위 요소는 모두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요소 중 수행 평가 능력이 피해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피해 경험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 경험이 지속되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의 발달 점수가 낮을수록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으며,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요소에 따라 집단 따돌림 경험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도 지지되었다.

셋째, 부모의 양육 행동 및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과 집단 따돌림 경험간의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요소 중 해석 능력이,

부모의 양육 행동 중 모의 거부적 태도가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에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능력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더 영향력이 있음을 예상하게 해 준다. 또한, 부모의 양육 행동 중에서 모가 아동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태도가 가해 경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이는 모의 거부적 태도로 인해 아동의 반항심이나 분노감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은 아동의 가해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예상해 보게 한다.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양육 행동 중에서는 부의 공격적 태도와 온정적 태도, 문제해결능력에서는 수행 평가 능력, 의사소통능력에서는 역할 수행 능력과 목표 설정 능력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는 달리, 피해 경험은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 능력이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의사소통능력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 양육 행동 중 모의 양육 행동보다 부의 양육 행동이 더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에 비해서 모의 양육 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으며, 부의 양육 태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부모의 양육 행동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은 집단 따돌림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의 빈도 분석 결과를 볼 때, 집단 따돌림 경험 정도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집단 따돌림 경험은 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부모 양육 행동의 영향을,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는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단 따돌림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을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모 양육 행동,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뿐 아니라, 집단 따돌림 경험과 관련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능력 발달 프로그램, 문제해결능력 발달 프로그램 등의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천 소재의 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아동들을 전체 아동들로 일반화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으로 연구의 결과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 방식에 있어서 자기보고의 방식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성실하지 않게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인 면접과 상담 등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항수를 고

려하더라도 집단 따돌림 가해 척도 문항의 신뢰도가 낮아서, 전반적으로 이 척도에 의해 측정된 것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집단 따돌림의 요인 분석에 있어서 본 연구는 부모 양육 행동과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른 제요인들(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지역사회 요인 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제요인들과 집단 따돌림의 관계를 연구하여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연구 결과는 몇몇 선행 연구들이 지지해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충분히 뒷받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화된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청소년에 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 따돌림 경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의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인 요인을 부모 양육 행동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에 주목하여 각 하위 유형의 특성을 밝혀 아동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하였다. 또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에만 치중한 데 비해 본 연구는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뿐 아니라 가해 경험에 대한 요인을 밝혔으며, 아직 연구가 미비한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이해를 보다 넓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집

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의 요인을 밝힘으로써 심리 치료적 개입을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은희 (2002).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분석-자기애 성향, 지배성, 사회·학업적 경쟁심 및 마키아벨리적 신념의 차이-.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강진령, 유형근 (2000). 집단 괴롭힘. 서울: 학지사.
- 구본용 (1997).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 방안.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강희 (2004). 초등학교생들의 집단 따돌림 경험과 자기능력지각 및 학교 적응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선애 (2007). 가족기능의 상실과 집단따돌림의 가해 피해와의 관계. 지성과 창조, -(10), 221- 244.
- 김선희 (2004). 부모양육태도 및 아동학대피해와 집단따돌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서울시 저소득 지역의 중·고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옥엽 (1999). 전라북도 지역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대학원논문집, 23, 85-124.

- 방신의 (2003).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대인 관계성향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송미선 (2007). 신도시 초등학교 중학년 집단따돌림 실태 및 관련변인 분석.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정만 (2001). 부모양육태도와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학교폭력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지영 (2004).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성숙도와 집단따돌림 피해정도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본 “왕따”현상. 서울 청소년 상담 연구 III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 이상균 (1999). 중학생 또래 따돌림(‘왕따’)의 예측요인. 한국사회복지학, 37, 357-379.
- 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개발원.
- 이주현, 신지용, 연병길, 한창환 (2000). 집단 따돌림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적 집단치료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2), 221- 230.
- 이춘재, 곽금주 (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 65-80.
- 이훈구 (2000). 사회문제와 심리학. 법문사.
- 장미향, 성한기 (2007).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77-87.
- 전재천 (1999). 초등학생의 집단 따돌림과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전윤식·강영심 (1987). 대인문제해결능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보, 23(1), 47-74.
- 최윤정, 김종원, 진혜경 (2001). 학령기의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의 인격성향에 관한 연구-한국 아동 인성 검사를 이용하여. 소아·청소년 정신 의학, 12(1), 94-102.
- 표내숙, 정상훈, 표경희 (2008).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험유형에 따른 애착관계와 교우관계기술의 차이. 교과교육학연구, 12(3), 815- 835.
- 한겨레21 (2007. 4. 26). 총기 ‘집착’이 괴물을 낳았다, 657.
- 한준상 (2002). 집단따돌림과 교육해체. 서울: 집문당.
- Fox ClaireL, Boulton MichaelJ. (2005). The social skills problems of victims of bullying: self, peer and teacher perceptions. *Th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2), 313-328.
- Georgiou, SteliosN. (2008). Parental style and child bully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s at school.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11(3), 213-227.
- Holt MelissaK., Kaufman Kantor, Glenda Finkelhor, David. (2009). Parent/Child Concordance about Bullying Involvement and Family Characteristics Related to Bullying Peer Victimization. *Journal of school violence*, 8(1), 42-63.
- Hsi-Sheng Wei, James Herbert Williams, Ji-Kang Chen, Hisu-Yu Chang. (2010).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teacher practice, and

- school organizational factors on students' bullying: A multilevel analysis of public middle school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1), 137-143.
- O'Brien, Catherine. (2007). Peer devaluation in British secondary schools: young people's comparisons of group-based and individual-based bullying. *Educational research*, 49(3), 297-324.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 Basic facts and an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me. *Promotion&Education*, 1, 27-31.
- Peter K. Smith, Paul Brain. (2000). Bullying in schools: Lessons from two decades of research. *Aggressive Behavior*, 26, 1-9.
- Pontzer, Daniel. (2010). A Theoretical Test of Bullying Behavior: Parenting, Personality, and Bully/Victim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3), 259-273.
- Spriggs, A. L. Iannotti, R. J. Nansel, T.R. Haynie, D.L. (2007). Adolescent Bullying Involvement and Perceived Family, Peer and school Relations: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cross Race/Ethnicit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official publication of the Society for Adolescent Medicine*, 41(3), 283-293.
- 1차원고접수 : 2010. 10. 9.  
수정원고접수 : 2011. 1. 11.  
최종게재결정 : 2011. 1. 12.

## **The Role of Parenting Behaviors, Child's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Skills in Bullying/Being bullied**

**Jin Young Park**

**Paul Kyu Man Cha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how parental rearing behaviors, child bullies' and victims'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skills influence their behaviors associated with bullying. The results of a survey on 481 male and female children, fifth and sixth graders from 15 classes in all, of a primary school in Incheon are as follows. First, the children's bullying or being bullied behaviors greatly varied depending on their gender, grade and their parents' marital life. Second, compared to the normal group, the group of bullies and victims scored lower on the good parental rearing behavior scale but higher on the bad parental rearing behavior scale. Third, child's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skills were significant factors in relation to bullying. For example, the group of bullies and victims showed lower scores on both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skills than the normal group. These results indicate child bullies' and victims'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skills and their parents' rearing behavior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both child bullies' and victims' behaviors. This study also includes i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Key words : bullying, being bullied, parenting behaviors, child'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skills*